

Modern Economic Thought

The American Contribution

by Allan G. Gruchy

金斗熙

美國의 制度學派 Institutionalism or Holism 이라고 불리우는 經濟科學 再建運動及 그 經濟學인 R. T. Ely, S. N. Patten 及 T. Veblen 에서始作되고 近年의 作家 J. R. Commons, W. C. Mitchell, J. M. Clark, C. G. Tugwell, G. C. Means 及 其他의 同傾向의 經濟學者에 依해서發展하였다. A. G. Gruchy의 Modern Economic

Thought 는 이러한 美國의 運動의 性質과 그 意義의 探求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著者는 第一章에서 美國의 經濟學의 變遷을論하여 이 運動이 美國經濟學界에서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게 된 經濟學을 밝히고 있는데, Holism 經濟學이 流行하게 된 原因으로 그는 다음의 두가치를 들고 있다. 卽 하나는 一九二九年 以後에

美國民이 直面하게 된 經濟問題의 特異性인바、一八七五年 以來 그 構造와 機能의 評價를 거듭한 美國의 經濟는 一九二九年 까지에는 獨占이 擴大되어 獨占의 產業部門이 經濟生活의 支配를 支配하는 混合經濟組織은 이복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多數의 重要한 產業部門에서는 價格은 生産費와 一致하지 않고 또 需要供給의 變動을 反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剩餘所得 surplus incomes은 競爭的 投資에 對한 報酬로 부터의 一時的 偏傾 deviation 이 아니고 또 非能率的 企業이 반드시 市場에서 脫落하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經濟의 自動的 適應은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明白해 졌다. 失業은 價格과 賃金을 低落시킴으로써 再雇傭되는 代身 反對로 더욱 增加하였고, 그 뿐 아니라 低利子率은 貯蓄의 減少와 消費의 增加代身, 貨幣의 保藏과 消費의 減少를 招來할 뿐 私的投資을 刺激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需要의 減少는 價格의 低落代身 生産量의 削減을 가져 왔든 것이다. 一九二九年 以後의 이

러한 賃金, 利子及 價格의 影響은 國民經濟로 하여금 沈滯 卽 낮은 經濟活動水準에서 벗어나는 것은 困難하게 하였다. 이러한 資源의 不完全雇傭을 비롯한 諸經濟問題의 發生은 實踐的 性格을 가진 Hobbes 經濟學에 對해서 活動分野의 研究에 對한 情熱을 附與했으리라는 것은 疑心할餘地도 없는 事實이다.

둘째는 一九二九年 以後 社會科學者를 魅惑케 한 科學的及 哲學的 態度 卽 世界觀 Weltanschaung의 問題인바. Holism 經濟學者들이 經濟學研究에 있어서 이러한 態度를 取했다는 事實이다. Holism 이 採擇한 이러한 學的態度는 正統學派의 經濟學者가 取해온 그것과는 版異한 것이니, 正統學派의 그것은 經濟組織을 靜態的 秩序라고 假定하고 經濟組織의 機能은 高度로 精練된 一般關係의 組織으로 보는 것이며, 그들은 經濟生活의 固定的, 永續的面을 強調하고 經濟活動의 動態的面을 無視한다. 그리고 日常經濟生活의 變動의 基底에는 不變의 構造와 秩序가 存在한다고 하며

이것을 分析함으로써 經濟 組織에 適用할 수 있는 一般的 經濟原則의 體系(그들에 依하면, 經濟學은 이러한 原則의 體系에 不過한 것이다)를 獲得할 수 있다고 생각 해 왔다.

이러한 正統學派의 機械論的方法은 一七、一八世紀의 英國의 哲學的及 科學的 思想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一七世紀의 物理學者間에 靜態的 宇宙의 概念을 普及시킨 것은 Isaac Newton 이었다. Newton 에 있어서의 宇宙는 閉鎖된 不變의 秩序 또는 組織이며 그作用은 多數의 不變의 또는 普偏의 法則으로 表現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Newton 의 靜態的 宇宙觀은 一八世紀에 이르기까지 John Locke 及 其他의 自然神敎的 哲學者, 그리고 社會及 自然界를 天與의 秩序를 가진 「코스모스」 Cosmos 의 部分이라고 생각하는 스코트랜드의 常識的 哲學者에 依해서 繼承되었다. 이 「코스모스」 그것은 Newton 에 있어서와 같이 後繼者들에 있어서도 靜態的 性質을 가진 封鎖的 宇宙였으며, 그것은

不變의인 것이었기 때문에 變化 또는 發展이란 本質的인 것이 아니고, 單只 表面的인 現象에 不過한 것이었다.

이러한 機械論的 方法이 一八世紀에 美國에 輸入되고, 그것이 經濟學者들에 依해서 攝取되어 一九世紀의 靜態的 經濟學은 全盛期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對해서 Holman 의 方法論은 歐羅巴의 Hegel, Marx, Darwin & Spencer 와 美國의 Peirce, James, & Dewey 의 思想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卽 十九世紀初에 Hegel 은 Newton 及 其他의 英國의 思想家의 機械論的 宇宙觀을 攻擊하고 Newton 의 閉鎖的 不變의 宇宙의 概念에 對해서 發展의 宇宙觀을 代置했고 Marx 는 Hegel 의 發展의 概念을 經濟的 領域에 適用하여 一八四〇년에 「共產黨宣言」에서 資本家的 經濟組織의 發展理論을 提示했다. Hegel 과 Marx 의 發展思想은 一八五九年에 發刊된 Charles Darwin 의 「種의 起源」 The Origin of Species 등 依해

서 그 基礎를 더욱 確固히 할 수 있었다. 「過程」 Process 또는 「發展」 becoming 이라는哲學的 概念은 여기서 「變化」 Change 及 「進化」 development 라는 生物學的 概念과 結合되었던 것이니, 發展의 思想이 生物學에 吸收되었다는事實은 發展의 見地의 普及를 招來하는 結果를 가져 왔는 것이다. Darwin 의 思想은 社會科學의 分野에 適用함으로써 最初로 發展의 見地를 社會科學部門에서 普及시킨 것은 H. Spencer 였다. 그러나 反機械論的 方法은 美國에서도 一八六八年 C. S. Peirce 에 依해서 主張되었다. 그에 依하면, 現實의 根本特質은 單樣性, 無變化의 可能性에 있는 것이 아니고, 多樣性和 變化及 發展의 可能性에 있는 것이며, 哲學的, 科學的 思考의 出發點은 閉鎖的 宇宙가 아니고, 變化和 發展의 可能性이 充滿해 있는 開放的 宇宙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는 正統的 思想家의 「絕對의 世界」 World of absolutes 에 對해서 「蓋然性的 世界」 World of probability 를 代置했다. 蓋然性

은 特히 社會科學의 分野에 있어서 變化和 更新의 可能性으로의 門을 열어 주지만, 普遍 또는 絕對는 變化를 假像의 또는 表面的이라고斷定하고 이에 對한 門을 굳게 닫아 버리는 것이다. 卽 Peirce 는 自然界 또는 社會를 靜態的으로가 아니고 動態的으로, 不變으로가 아니라, 進化的으로 보는 方法을 提供해 주었는 것이다.

Peirce 의 이러한 宇宙觀은 美國의 實用主義者 W. James, J. J. Dewey 에 依해서 繼承發展되었다. 그들은 世界秩序를 各各 獨特한 步調로 變化하고 따라서 完全히 調和된 卽 均衡된 體系가 아닌 多數의 部分으로 形成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그들은 社會關係의 動態的 變化的局面에 注意를 集中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諸學者의 學的態度를 經濟學研究에 攝取한 Holism 的經濟秩序를 常時 變動과 成長을 거듭하고 있는 開放體系라고 보는 것이나.

그러면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美國에서 널리 流行하게 된 Holism 經濟「學派」의 特質은 어디

있는가? 大抵 經濟 「學派」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共通的인 研究態度를 取하고 있는 學者群을 意味하며 이 共通的인 研究態度에서 그를 經濟思想을 貫流하는 一致點이 分出하는 것인바, 이러한 一致點이 라는 것은 分析의 基盤、心理學理論及 科學的方法이라고 Gruchy는 말한다. Holian 經濟學에 있어서는 分析의 基盤은 既述한 바와 같이 發展的 組織으로서의 經濟秩序이고 心理學理論으로는 社會心理學理論을 擷取하여 個人은 經濟에 參與하는 一分子에 不過하고 따라서 그 行動은 大體로 集團的及 慣習的이라고 한다. 그리고 科學的方法에 있어서는 新古典學派의 個別的 原子論的方法은 取하지 않고 經濟의 各部分은 全體經濟의 制約을 받는 다는 意味에서 全體로서의 經濟의 機能을 極히 重視한다.

以上과 같은 共通的 研究態度에서 出發한 Holian 經濟學派는 理論의 形態 乃至 形式만을 重視하는 從來의 「形式的」 formal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이

아니고, 理論의 內容及 理論과 經濟現實과의 聯을 重視하는 「文化的」 Cultural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樹立하려 한다. 勿論 그들도 科學의 形式을 全然 無視하는 것은 아니지만, 科學者가 現實無智에 빠지지 않으려면 現實을 無視하고서 가지 形式을 重視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그러면 文化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樹立한다는 것은 어떠한 意味인가? 그것은 Gruchy 에 依하면從來의 概念圖式 또는 思考體系를 拋棄하고 經濟를 靜態的인 「메카니즘」으로가 아니고 動態的體系 또는 「過程」으로 보는 概念圖式에 立脚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經濟는 部分의 單純한 集合이 아니고, 各部分이 機能的으로 相互聯關을 가진 全體인 것이다. 그러나 形式的 經濟學者의 靜態的 「메카니즘」의 均衡이 아니고 慣習的 行爲、情性、個人的 自利心及 集團的 行動等 多數의 要因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文化的 調和 cultural harmony 이다. 여기에 있어서 經濟의 構造와 機能을 分析하기 爲해서는 「相互聯關의 原理」

the principles of interrelations를 利用해야 하고
로 經濟組織의 過去、現在及 未來를 內包하고 있
다는 意味에서 「文化發展의 理論」 a theory of cul-
tural development을 攝取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다. 그런데 이러한 過去、現在及 未來를 內包하
고 있는 經濟組織의 어떠한 部分을 研究하느냐
는 各經濟學者의 特殊한 關心에 左右된다고 할
수 있으며, 現代 美國의 Holism 經濟學者는 美
國 資本主義 經濟의 最近의 發展段階를 研究의
對象으로 한다.

Gruchy는 이러한 研究態度와 以上과 같은 共
通的 關心을 共有하는 Holism 經濟學者中에서
Thorstein Veblen, John R. Commons, Wesley C.
Mitchell, John M. Clark, Rexford G. Tugwell &
Gardner C. Means의 六名을 擇하고 第二章에
서第七章까지에서 그들의 經濟學說을 要約 紹介
하고 있다. 以上の 諸學者들은 各各 그 專攻部
門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들이 모다 共通적인 研
究態度에서 出發하여 一學派를 形成한 一致點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各者の 著書及 論
文을 通하여 看取하고 있다. Gruchy는 어디까
지나 여기서는 各者の 專攻分野의 解說要約 그
自體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Holism 經濟學派의 研究態度에서 이루어진 理論
이라는 點을 強調하며 Holism 經濟學의 特質을
具體的 理論의 檢討를 通하여 明確히 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은 Gruchy
가 以上の 諸學者의 學說을 紹介 分析하는데 있
어서 大體로 各者の 心理學 分析方法及 各者の
經濟學의 性質과 範圍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보더라도 充分히 알 수 있다.

이러한 Holism 經濟學者의 學說의 檢討를 마
치고 Gruchy는 最終章인 第八章에서 二十世紀
의 政治經濟學 political economy (Holism 經濟學
은 文字 그대로 「政治」經濟學이라고 불릴을 資
格이 있을 것이다.)의 生成이라는 題目下에 前章
까지에서 分析한 諸經濟學說을 基礎로하여 Holism
經濟學體系의 概觀을 提示하고 있다.

Holism 經濟學의 理論體系는 經濟價値의 決定及 所得分配을 支配하는 法則 laws 을 論理的으로 連結한 데 不過한 그런 것이 아니다. 勿論 그 것도 必要하기는 하지만 그 以上으로 그것은 特定 經濟秩序의 理論 卽ち Verner Sombart 가 말한 바 「聯關的 經濟組織」 connected economic System 의 理論이고 特定 文化領域에 있어서의 經濟的 分野의 構造及 機能의 一般化이어야 한다. 이러 한 理論을 構成하기 爲해서는 于先, 經濟秩序의 性質에 關한 一般概念의 發展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秩序의 概念은 經濟理論의 基礎이며 經濟理論은 經濟組織의 構造와 機能分析의 成果인 것이다. 萬若 經濟組織이 完全競爭에서 完全獨占에 이르는 各種 形態의 經濟行爲로 構成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形態의 企業에 關해서 理論을 構成하고 다음에 全體經濟의 各部門間의 相互關聯의 理論을 構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相互關聯은 十九世紀 經濟學에서는 全然 問題가 되지 않았든 것이다.

經濟秩序의 理論 構成의 第二段階는 經濟發展理論의 構成이다. 모든 具體的 經濟組織은 歷史的 文化的 產物이고 따라서 過去, 現在及 未來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經濟發展理論은 經濟變動의 法則 laws 의 樹立이 아닌 것이니 經濟變動에는 法則 樹立에 必要한 아무런 規則性도 共通性도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法則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해서 經濟變動이 科學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發展의 論理를 發見할 可能性은 如前히 存在한다. 卽ち 確定된 經濟法則의 支配는 발지 않지만 經濟組織은 自然的 文化的 環境이라는 連鎖에 依해서 그 發展이 促進되는 制約된다고 Holism 經濟學者는 主張한다. 그들은 어떠한 經濟狀態의 分析이든 그것은 經濟發展의 論理와 結合될 때에 비로소 完全한 分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Holism 經濟學은 다음과 같은 두個의 前提에 立脚하고 있다. 하나는 全體經濟組織의 性質을 前述한 바와 같이 單元的인 靜態的 經濟

關係의 「메카니즘」 또는 均衡이 아니고, 多元의 文化過程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人間行爲의 性質에 關한 것으로 모든 經濟活動은 經濟秩序라는 組織體內에서 行해진다는 意味에서 社會的, 集團的이라고 하는 것이다. Pollett 經濟學者는 이러한 前提下에서 競爭과 獨占의 兩要素가 混合된 多元的 經濟組織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는 데 獨占의 部門에서 價格을 形成하는 價格機構는 첫째로 그 部門에서 形成되는 價格이 生産費水準까지 低落하지 않고 이러한 價格과 生産費의 不一致는 企業者의 不勞所得의 源泉이 된다. 둘째로 그것은 資源의 能率的인 配分을 保障할 수 없다. 獨占部門에 對한 企業新設이 制限되어 資本의 移動이 制限되어 있는 以上 消費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이 阻害될 것은當然한 일이다. 다음에 셋째로 그것은 不完全雇傭을 招來한다. 獨占部門에서는 企業者는 純利潤의 最大化를 保障하는 價格을 決定하려 하는바, 그것은 勞動 또는 資本의 最大限의 利用을 確保

하지 않는다. 이러한 部門의 企業者의 價格政策은 生産量의 制限과, 勞動者及 機械의 雇傭의 削減을 結果하게 된다.

이러한 現代 經濟組織에 內在하는 諸矛盾을 看破한 Pollett 經濟學者들은 現代經濟를 自由로 放任할 때에는 以上の 諸矛盾은 克服될 可能性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더 擴大되는 方向으로 나갈 것이라고 指摘하고 國家資源의 能率的 配分을 保障하고 不勞所得의 蓄積을 阻止하고 또 高水準의 經濟活動을 實現하기 爲해서는 現代의 混合價格機構에 어떠한 干涉 또는 統制를 加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具體的인 政策에 있어서는 그들 間에도 意見의 完全한 一致는 보지 못 하고 있다. 즉 Veblen은 價格機構가 私企業에 結着되어 있는 限, 適切한 機能을 할 수 없다 하고 Commons는 小商人, 農民, 勞動者及 消費者들의 自發的인 結合에 依해서 形成된 市場機構를 國家機關이 抑制함으로써 市場을 統制해야 한다는 보다더 保守的인 見地에 立脚하고

Clark, Tugwell 及 Means 는 爛熟 資本主義經濟의 制度的 基盤은 存續시키지만 私的市場의 作用에 廣汎한 干涉을 加하는 어떤 國民經濟的 計劃을 主張하여 Veblen 의 急進的 方案에 反對하는 同時에 Commons 의 制限된 提案을 擴充하려 한다.

그러면 이러한 Holman 經濟學의 發展은 經濟學界에 對해서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 Grucly 는 本書의 末尾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 卽

첫째로 그것은 經濟理論 構成의 範圍를 擴大했다. 經濟學은 私的 市場內의 個人的 活動으로 부터 全體經濟의 一般的 機能으로 注意를 轉換했다는 意味에서 微視的 理論으로 부터 巨視的 理論으로 轉換했다.

둘째로 그것은 經濟學과 其他의 社會科學 特別히 心理學及 社會學과의 關聯을 密接 不可分하게 하였다. 그들의 經濟學의 基礎를 形成하는 文化의 理論은 特別히 社會學과의 關聯의 紐帶가 되

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끝으로 Holman 經濟學의 發展은 經濟理論과 經濟現實間의 間隔을 縮小시켰다. 이 經濟學의 基盤에 存在하는 諸前提가 確固한 經驗에 立脚하여 歸納적으로 形成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美國民이 現在 負擔하고 있는 經濟問題와 直接 關聯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Grucly 는 本書에서 Holman 經濟學을 分析檢討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樣式을 採擇하고 있다. 卽 하나는 이 學派에 屬하는 學者의 學說을 檢討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縱的인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理論體系의 分析이며 이것은 橫的인 方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各學者의 學說을 紹介, 檢討及 批判함에 있어서, 그것이 Holist 의 學說 일때는 勿論 Holist 가 批判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正統學派의 그것일 때에도 綜合的인 觀點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意義를 適切히 評價하고 또 차지하고 있는 位置를 明白히 하며, 讀者로 하여금 迷

路에 빠지지 않고 恒常 注意를 理論의 重點에 集中케 한다.

또 그는 Holism의 理論體系의 分析及 提示에 있어서도 傳統的인 理論과 版異한 新奇한 形式을 擇하지 않고 可及的 從來의 形式을 踏襲하고 있으므로 讀者에게 奇異한 感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形式보다도 內容을 重視하는 Holism 그 自體의 性格이기도 하다.

自由放任主義에 對한 攻擊書로 J.M. Keynes의 「一般理論」은 그 發刊 以來, 實로 無數하다고도 할 만한 多數의 紹介 또는 解說을 가질 수 있는데 對해서 自由放任主義에 對한 또 하나의 政變者群인 Holist의 理論에있어서는 그 紹介가 極히 적은 것은 兩者의 理論的 內容의 優劣에서만 오는 것이라고는 斷定할 수 없는 것이다. 美國의 經濟思想史家들은 Holist의 經濟科學 再建運動을 經濟科學發展에 對한 最高의 貢獻으로 認定하고 있지 않은가? Holism의 紹介가 極히 드문 지금에 있어서 Gruchy의 「現代經濟思想」은 그것이

內包하고 있는 內容의 豐富性 如何를 度外視하고 單只 Holism 經濟學 全般에 걸친 紹介라는 意味에서 만도 호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